

광주매일신문



대표전화 (062) 650 - 2000



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(음력 10월 1일)

'광주 민간·군공항 무안 통합이전' 논의 큰 고비 넘었다

대통령실·광주·전남·무안사전협의

김용범·강기정·김영록·김산 4자 회동 쟁점 논의…정부 중재안 큰틀 공감대 市 지원 1조 일부 국가사업으로 보완 KTX 2단계 완공 전 민간공항 이전 무안에 조속한 시일내 국가산단 조성 6자 협의체 내달 중 본격 가동 합의

광주·전남지역 최대 현안인 '광주 민간·군공 항 무안 통합이전'이 본격적인 논의의 불씨를 지필 큰고비를 넘으며 해법 찾기에 한발짝 다가섰다.

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주선으로 강기 정 광주시장, 김영록 전남지사,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19일 서울 용산의 한 식당에서 광 주 민간·군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 협 의를 진행했다.

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·전남 타운홀 미팅 때 약속한 '대통령실 주관 군공항 이전 6 자 협의체'의 사전 협의로 그동안 각 기관이 제 기한 쟁점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입장을 공유했다.

이날 4자 회동을 통해 통합이전 관련 주요 쟁 점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각 지자체의 입장에 대



군공항이전 4자 회동 '웃음꽃'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, 김산 무안군수,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용산의 한 식당에서 광주 민간·군공항 통 합이전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〈광주시 제공〉

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.

무엇보다 대통령실과 3개 지자체는 정부 중재 안에 큰 틀의 공감을 이뤘으며, 12월 중 조속한 시일 내에 기획재정부, 국방부, 국토교통부를 포 함한 6자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.

정부 중재안은 ▲무안군이 요구한 공모 방식 군공항 이전지역 선정 불가 ▲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수용 ▲무안군 요구 3개 선결조건 조정 ▲

광주시 1조원 지원 이행방안 마련 ▲정부 차원 의 국가산단 등 지원책 검토 ▲광주공항 선(先) 이전 등으로 알려졌다.

정부 중재안을 토대로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결 과, 무안군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.

특히 무안군에 대한 1조원 규모 주민지원사업 의 경우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, 부 족한 사업비 일부(3천억원 이상)를 국가사업으 로 메꿔 지원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.

또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완공 이전에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 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.

그동안 여러 난제가 얽혀 10여년간 장기 표류해 온 군공항 이전 논의가 이번 4자 사전협의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와 긍정적 여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대통령실과 광주시·전남도·무안군 3개 지방 정부는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가 도 출되도록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이어 갈계획이다.

강기정 시장은 "군공항 이전 사업이 드디어 실행 국면에 접어들었다. 환영한다"며 "이번 '대 통령실-지자체 4자 사전협의'는 허심탄회한 대화 로 상호 신뢰를 쌓은 소중한 시간이었다"고 평가 했다. 강 시장은 또 "6자 협의체 구성을 주도한 이 재명 대통령과 조건 없이 협의에 나서준 김산 군 수, 광주·전남 상생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김영록 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"며 "6자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호남의 새로운 도약을 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"고덧붙였다.

김영록 지사도 "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대통 령실의 중재로 광주 민간·군공항 통합이전 논의 가 마침내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"며 "정부에서 도 전남도가 주장해온 획기적 지원 대책을 제시해 준 만큼 이를 계기로 반드시 전남 서남권과 무안 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겠다"고 강조했다.

그러면서 김 지사는 "무안에 조성될 국가산단 은 공항과 KTX가 통과하고 재생에너지, 풍부한 용수 등 여건이 최상급이어서 반도체 팹 등 첨단 산업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을 것"이라며 "국 가산단 등 미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고 정 부·광주시·무안군과 협력해 통합이전이 성공적 으로 완수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"고 밝혔 /김재정·변은진 기자

도시철도 2호선 1단계 2027년말 개통…결국 1년 지연

암반·지장물·기록적 호우 등 영향 전체 공정률 68.9% · 도로 개방 67% 내년 말 공사 완료…1년간 시운전

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(시청-광주 역) 구간 개통 시점을 2027년 말로 확정했다.

김준영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19일 "2호선 1 단계 구간은 당초 2026년 말 개통할 계획이었으 나 암반, 지장물, 기록적 호우 등 복합적 요인으

로 기존 계획보다 1년 지연된 2027년 말 개통한 다"고밝혔다.

속도감 있게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굴착 과정에서 예상보다 41.6%나 많은 암반이 발 견됐다"며 "통상 발파 처리를 하지만 발파할 경 우 통신선이나 도시가스관, 상하수도 관로를 건 드려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시민 안전을 위해 일일이 암반을 깨는 과정을 거쳤다"고 개통 지 연 이유를 설명했다.

지하 매설물의 실제 위치와 수량이 설계와 달

랐던 점도 공정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.

김 실장은 "지장물은 설계 대비 1.8배 증가하 김 실장은 "당초 저심도 개착공법을 적용해 며 안정화 조치가 필요했고 한전, 해양도시가스, 상하수도 등 각 기관의 관리 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가 이어지면서 일부 공정은 1년 8개월까지 도 지연됐다"며 "지하시스템 도면을 보고 공사 를 추진하지만 실제 위치가 달라 안정화 조치가 상당히 필요했다"고 말했다.

특히 김 실장은 "지난 7-8월 하루 최대 426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발생해 정거장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"며 "다행히 시민 피해는 없었지 만 10월까지도 비가 많이 와 지상 공사는 물론 전 체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"고 부연했다.

광주시는 이같은 현장 여건을 반영해 토목 공정 이후 진행할 건축, 전기·신호·통신, 소방 등 10개 분 야 공정 등을 통합 분석한 결과, 기존 계획보다 1년 지연된 2027년 말 개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.

김 실장은 사전 지반조사 부실 지적에 대해 "설계 당시 시공 기준에 따라 100m 간격으로 시 추 조사를 통해 암반을 확인했으나 공사 도중 우 연치 않게 일부 구간에서 추가 암반이 발견된 것"이라며 "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안타깝 게 생각한다"고 해명했다.

기후변화로 인한 추가 지연 가능성을 묻는 질 문에 김 실장은 "날씨 변수가 가장 크다"며 "시 간당 200mm의 비가 오면 방법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배수시설을 갖춰 (만일의 상황을) 대비하고 있다"고 답했다.

2호선 완전 개통 시점과 관련, 김 실장은 "1단계 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운행할 계획이고 2 단계는 난공사 구간과 예산 문제로 7공구와 10공구 가 5번 유찰됐다"며 "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와 최 종 보완 설계를 통해 총사업비 합의를 거칠 계획이 다. 당초 2029년 목표보다는 늦어져 2030년께로 예 상하고 있다"고 밝혔다. ▶2면에 계속 /변은진기자

Today

옛적십자병원 '미래세대관' 탈바꿈하나 6면

남도인물열전-의병장 '제봉고경명' 14면

KIA, 임기영 보내고 한화 이태양 지명 16면



+